

한은 광주전남본부 '돈 깨끗이 쓰기' 캠페인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본부장 박현덕)는 30일 광주 양동시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돈 깨끗이 쓰기' 및 '동전 사용하기' 캠페인을 벌였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제공>

광주은행 '고객사랑 만족 대잔치' 시상식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30일 본점에서 창립 4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고객사랑 큰만족 대잔치' 3분기 경품 시상식을 가졌다. 광주은행은 올해 총 1천228명의 고객에게 경품을 증정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신세계 희망 장난감 구입비 500만원 전달



광주신세계(대표 이장환)는 지난 29일 북구 종합사회복지관 '신세계 희망 장난감 도서관 2호점'에서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유길원)에 장난감 구입·운영 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 CGV첨단 노인 초청 무료 영화관람



광주 CGV첨단은 지난 29일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CGV첨단 극장에서 영락 양로원 및 장성지역 노인 50여명을 초청, 무료 영화관람 행사를 가졌다.

한국전력거래소 본사 나주 이전 추진실 정명도 과장

“서둘지 말고 명품도시 만들어 달라”



“최고의 교육·의료·주거 환경을 갖춘 '명품도시'로 지어주길 기대합니다.” 30일 광주시가 개최한 '공동혁신도시 이전 기관 임직원 초청 지역탐방 행사'에 참가한 정명도(45) 한국전력거래소 본사 이전 추진실 과장은 “나주로 주거를 옮기게 될 임직원들의 소망은 수준 높은 교육·의료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현재 살고 있는 서울과 같은 환경이 될 수는 없지만 쾌적한 주거 여건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공사를 서두르기보다는 명품도시를 짓는데 힘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혁신도시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나주시 금천면 배매산 정상

검토 방침으로 공기에 차질이 빚어져 걱정하고 있었다”며 “정부 방침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 정부가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소망을 내비쳤다. 현재 본사 이전 추진 업무를 맡고 있는 정 과장은 “직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자녀들의 교육 문제다”며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목고의 혁신도시 입주자 가시화돼 교육 여건이 갖춰진다면 혁신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기관 임직원 47명은 지난 29일 광주와 전남을 방문, 2박3일 동안 혁신도시 조성 현황 등을 살펴보고 지역 탐방을 한 뒤 31일 상경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

광주·전남 출신 손수익·임권택씨

‘근대사 50인 유주영 사진집’ 실려



방일영문화재단이 발행한 '한국 근대사 50인 유주영 사진집'에 광주·전남 출신으로 손수익(76·장흥) 전 교통부장관과 임권택(72·장흥) 영화감독이 선정됐다. 1970년대 문화공보부장관을 지낸 유주영씨는 우리 근대사를 이끌었던 50명을 통해 역사를 재조명해 보자는 취지에서 방일영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 5일 사진집을 발간했다. 이 사진집에 실린 손수익 전 장관은 1973년부터 1979년까지 6년간 산림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험박고 붉은 산을 푸른 산으로 바꾸기 위해 전국토를 누빈 산림녹화의 주역으로 소개됐다. 또 임권택 감독은 '6·25이후 황폐한 영화계에 뛰어들어 열악한 제작환경

속에서도 임권택 특유의 영상체계를 완성시켜 국내 영화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킨 인물로 평가됐다. 이밖에 한국 철강 신화를 만든 박태준 전 포철화장을 비롯해 근대화 주역인 남덕우 전 국무총리, 국민가수 이미자 등이 수록돼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졸업 작품전 수익금 이웃돕기 기탁

서강정보대학 호텔조리학부



서강정보대학 호텔조리학부(학부장 고대희) 학생들이 30일 안양관 등에서 졸업작품전 및 뷔페 페스티벌을 열고, 그 음식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기로 했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졸업작품전은 '아름다운 음식, 추억의 맛'을 주제로 2학년 학생들이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조리실력을 발휘 40여점의 음식 작품을 선보였다. <사진> 또 1학년 학생들이 주축이 돼 연 '뷔페 페스티벌'은 호텔 뷔페 음식 300인분을 조리해 이날 졸업작품전에 참석한 학부모, 교수, 재학생들에게 판매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모인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 살레시오초등학교 학생들이 30일 광주지법에서 모의재판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도시락 훔쳤으니 3일간 운동장 청소하세요”

광주 살레시오초 학생들 범원서 모의재판 벌여

초등학교 학생들이 '도시락 절도 사건'을 놓고 모의재판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30일 오후 광주지법 104호 법정에서는 광주 살레시오초등학교 6학년 학생 30여 명의 재판 체험행사가 열렸다. 학생들은 판사 3명(재판장 이해인양 등), 검사(박성환군), 변호인(이선호군), 피고인(이상준군), 증인 2명(허유민양 등) 등의 역할을 가위·바위·보로 정한 뒤 교실에서 발생한 도시락 절도 사건을 가상해 모의재판을 했다.

범복을 입은 '초등학생 판사' 3명이 들어오고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이 시작되자 학생들은 진지한 눈빛으로 경청했다. 모두진술, 피고인 신문, 증거 조사, 최종의견 진술 등 실제와 다름없는 과정이 진행됐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피고인은 결국 “다시는 친구의 음식이나 물건을 훔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배석판사들과 합의 끝에 재판장은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3일간 운동장 청소를 명령했다.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1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는 안내도 잊지 않았다. 이번 모의재판은 광주교범이 올해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을 홍보하려고 마련했다. 학생들은 재판장, 판사, 검사, 변호인, 증인, 피고인 등 다양한 역할과 법정을 견학하며 ‘법원과의 거리’를 좁혔다. 변호인 역할을 맡은 이선호군은 “어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변호인 역할을 자청했다”면서 “평소에 TV를 통해 재판을 볼 때는 쉬워보였는데 실제해보니 재판장, 검사, 증인 등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해 참 어렵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남대병원 황태주 교수 / 조선포대 오금곤 교수

소아혈액종양학회 공로상 / 전력전자학회 공로상



황태주 전남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최근 서울 세라톤호텔에서 열린 제4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에서 학술공로상을 수상했다. 황 교수는 소아혈액종양학 분야에서 탁월한 학문적인 업적과 학회발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오금곤 조선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31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2008 전력전자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오교수는 국가공무원임용시험 출제위원, 광주시 건설 자문위원, 경관조명심의위원을 역임했고 한국조명설비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인사

- ◆국제청 <사무관 승진예정자> ▲광주지방국세청 고을석, 정순오, 최재훈, 임희택, 조유운, 박철기, 김현진 ▲북광주세무서 윤석중 ◆하나대투증권 ▲목포지점장 서철길 ▲서광주지점장 채욱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 ▲오광호(광주일보 독자서비스국 발송부장)·박옥란씨 차남 효훈(JT 인터넷네트워크에 광주지점)은 유익태·김영자씨 막내 애리양=11월2일(토) 낮 1시30분 갤럭시아워드를 2층 크리스탈홀. ▲박병춘·임하림씨 장남 왕용(광주일보 독자서비스국)은 이명수·윤덕임씨 장녀 소은양=11월2일(일) 오전 11시50분 동명동 오페라하우스 1층 오페라극실. ▲이상옥(이주가족복지회 이사장·전 광주일보 이사)·한신에서 차남 훈호(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군 정순규(춘천다승교회 담임목사)·김사라씨 장녀 영은(미디어스 기자)양 =11월1일(토) 낮 1시 서울 명동 향린교회 3층 예배당. ▲이근영(전 광주일보 사진부

- 장)·김숙자씨 장남 모세(조선비즈니스&TV PD)군 김경호·홍경숙씨 장녀 현주(서울 신동초 교사)양 =11월1일(토) 오후 3시 서울 국민일보 CCMM웨딩홀 코스모홀. ▲이대환·양영희씨 차남 석근 박인선(광주지점 수사관)·고진주씨 장녀 운정양=11월8일(토) 낮 1시 서울 대검찰청예식장 별관 4층 무궁화홀, 광주 피로연 11월2일(일) 낮 12시 리더스클럽 금남로점. ▲고희석·박동임씨 장남 영인군 문중운·오명희씨 딸 지선양 =11월1일(토) 낮 1시30분 사직공원 건너편 베니스웨딩컨벤션 꿈에 그린홀. ▲류경만·윤정희씨 차남 광수군 진중완·박순란씨 장녀 혜진양 =11월2일(일) 오전 11시30분 사직공원 건너편 베니스웨딩컨벤션 꿈에 그린홀. ▲류경만·윤정희씨 차남 광수군 진중완·박순란씨 장녀 혜진양 =11월2일(일) 오전 11시30분 사직공원 건너편 베니스웨딩컨벤션 꿈에 그린홀. ▲곡성 중앙초교 58회 동창회(회장 김용환) =11월2일(일) 오전 11시

동창·동문회

- ▲순천고등학교 30 기수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11월2일(일) 오전 9시 순천 남초등학교. 010-6388-6839(총무). ▲비아중 총동문회 '남해 금산' 가을 산행 =11월1일(토) 오전 8시30분 무등경기장 앞. 016-650-4533(이창재). ▲대중중학교 12회 동창회(회장 박종이) =11월1일(토) 낮 12시 사직공원 건너편 베니스웨딩컨벤션 2층 로즈홀. ▲광주·전남 검정고시 동문 체육대회 =11월2일(일) 오전 9시30분 광주 진원동 효덕초교, 검정고시인은 누구나 참석 가능. 011-645-2284(사무국장 이의준). ▲곡성 중앙초교 58회 동창회(회장 김용환) =11월2일(일) 오전 11시

중친회

- 모교 체육관. 018-602-3260(김윤숙). ▲곡성 서초교 1회 동창회(회장 김영중) =11월2일(일) 오전 11시 모교 체육관. 019-604-5160(박순덕). ▲광주사대부중 4회 동창회(회장 전성수) 월례회 =11월4일(화) 오후 6시 금남로 신한은행 뒤편 유명회관. 062-512-5574, 011-9220-5574. ▲광산이씨 상서공파 필문회(회장 이태고) 월례회 =11월4일(화) 오후 6시30분 화랑궁식당. 018-616-5755.

모임

- ▲꽃골프(일명 발골프) 동호회원 친선경기 =11월1일(토) 오전 10시 점단지구 교통공원 족구장 옆 잔디밭, 초보자 환영. 010-4604-4608(이은규 전남과학대학 교수) ▲이계은씨 별세 증범(전남도의회 사무처장)·용범(자영업)·광범(회사원)씨 부친상 김호충(대한조선 사장)씨 부부상 =발인 11월1일(토) 여수성심병원 장례식장. 061-653-1499. ▲심순섭씨 별세 재영·재중씨 부친상 =발인 11월1일(토) 우산동 무등장례식장 101호. 515-4488. ▲류운숙씨 별세 흥영·민승·혜숙·혜자·인숙·경희·인자씨 모친상 강명보·이명수·안재린·이교준·김정남씨 부부상 =발인 11월1일(토) 각화동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062-250-4407.

- ▲최금식씨 별세 마흥춘·옥춘·풍춘·부춘·기복·기철·정지씨 모친상 유덕인씨 부부상 =발인 11월1일(토) 학동 금요장례식장 201호. 062-227-4381. ▲김덕수씨 별세 봉수·미경·미옥·미선씨 부친상 이대우·조영동씨 부부상 =발인 11월1일(토) 학동 금요장례식장 101호. 062-227-4385. ▲박홍배씨 별세 영옥·영식·영주·영숙·영자·순숙씨 부친상 문순철·현서씨 조부상 심민식·전동진·조상형씨 부부상 =발인 31일(금) 각화동 그린장례식장 9분향소. 062-250-4409. ▲홍효분씨 별세 박동훈·영준씨

- 모친상 =발인 31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박재평씨 별세 도성·천광·대성·은하씨 부친상 박태진씨 부부상 =발인 31일(금) 각화동 그린장례식장 12분향소. 062-250-4412. ▲최충현씨 별세 금와·금일·금성·금남·금란·혜란씨 부친상 이승원씨 부부상 =발인 31일(금) 각화동 그린장례식장 10분향소. 062-250-4410. ▲이영행씨 별세 정섭·정호·정필·영규씨 부친상 최동철씨 부부상 =발인 31일(금) 광산구 송정장례식장 1호실. 062-941-4400.

대한민국 최초 프리드 신진국영 장례시스템 현대중앙상조 1688-3740